

## 백원국 제2차관, “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 협력” - 25일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협력 논의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5일(수) 오전 세종에서 응웬 단 후이 (Nguyen Danh Huy)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에서 검토 중인 ‘베트남 북남 고속철도’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  - 이번 만남은 호치민~하노이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측에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운영 중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되었다.
- 백 차관은 “한국은 '04년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, 수도권 고속철도(수서~평택)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을 갖춘 나라”라고 강조하며, “베트남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  - 구체적으로 한국은 초창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기술 부족은 고속철도 건설 전담조직인 ‘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’ 설치·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,
    - 해외 기술이전 및 국가 R&D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기술로 개발·상용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.
  - 아울러,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오는 11월에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부산 지지를 당부하였다.
- 이에 응웬 차관은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경험 공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“한국에서 공유해준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북남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 (Pre-Feasibility Study)를 금년 중 마무리하여 '25년까지 정부 방침을 마련할 계획”이라며,
  - “정부 방침이 확정된 이후 설계, 시공 등 북남 고속철도 사업 본격화 과정에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10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